

2) 송광사 승려들의 의승수군 활동

송광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의 본거지였다. 자운·윤눌·혜희 등의 승장들이 왜란 때에 내륙지방의 승군지역대를 통괄하는 위치에서 송광사의 의승들을 지휘하였다. 왜란이 끝난 이후에도 송광사에 주석(駐錫)했던 벽암각성(碧巖覺性)·대가희옥(待價熙玉) 등이 남한산성의 승장으로 계속 활약하여 승군들의 호국정신을 꾸준히 이어갔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전하는 자료는 이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만 전하고 있어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문헌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짧은 기록이나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의승장 자운·윤눌은 화엄대선 겸 선교관(禪敎判)으로 임진왜란 때 통제사 이순신의 부장(副將)이었다. 그는 진주성을 함락시킬 때 훈공을 세워 국가에서 자운 대장의 직첩을 주고, 좌수영 충무사에 배향하여 국제(國祭)를 하고 있다. 윤눌의 친동생인 대가당(待價堂) 희옥대사(熙玉大師)는 나라에서 팔도도승통겸남한도총섭직(八道都僧統兼南漢都摠攝職)의 정첩(定帖)을 내렸으나 굳이 사양하였다. 대가의 친동생이 둘이었는데, 비능(斐能)과 급암(汲巖)이다. 비능은 9년 동안 담양금성 승장을 지냈으며, 급암 또한 입암 승장으로 있다가 죽었다.¹⁾ 자운과 앞에서 서술한 삼혜를 동일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²⁾ 보다 분명한 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1) 『曹溪山松廣寺史庫』第二編, 人物部 第六節 待價大師, 562쪽.

2) 梁銀容, 앞의 논문; 「흥국사 所藏資料로 본 義僧水軍」, 『천라좌수영과 임진왜란 義僧水軍의 활동』(全羅左水營 再照明 學術大會 발표요지문), 麗川市, 1996.